

PRESS RELEASE

EMO 하노버 2013 – 세계 최고 기업들이 찾는 금속가공 공작기계 박람회

2012 년 12 월 12 일, 서울 – 세계최대 금속가공 공작기계박람회인 EMO 하노버의 개최 일자가 2013 년 9 월 16 일부터 21 일까지로 확정됐다. 격년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생산 현장의 인텔리전스 (Intelligence in Production)”를 메인 주제로 금속가공 분야 세계적인 업체들이 최신 제품, 솔루션, 서비스를 선보이는 자리다.

주최측인 독일공작기계협회(VDW)의 클라우스-페터 쿤뮌히 이사는 12 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EMO 하노버는 생산 현장의 인텔리전스를 주제로 제조 업계가 직면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솔루션을 전세계에 제시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EMO 는 세계적인 전시 무대로 공작기계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장소다. 산업별 투자책임자, 제조기술 분야 글로벌 기업체, 과학자, 정계 대표 등이 참가한다. 세계적인 업체들이 혁신적인 솔루션을 보여주는 만큼 EMO 하노버는 향후 몇 년 동안 제조 분야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EMO 2011 년 행사에는 2000 여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 중 60%는 독일이 아닌 다른 40 여 국가에서 참가한 외국 기업이었다. 한국에서도 41 개 업체가 참가했다. 쿤뮌히 이사는 “EMO 하노버는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공작기계 업체에게 중대한 고객 접점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공작기계 사용 기업은 자신에게 맞는 올바른 제조 기술과 전문적인 사업 파트너도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 배치(batch) 업체나 표준화된 제품 생산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2011 년 행사에서는 100 여 국 14 만 명의 업계 전문가들이 현장을 찾았다. 해외 참가자 비율은 36% 였으며 비유럽 국가로는 특히 아시아 지역으로부터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EMO 하노버 – 제조 기술을 위한 글로벌 서밋

EMO 하노버는 최고만을 위한 행사다. 따라서 관련 업계 전문가와 전시기업 모두에게 매력적인 행사일 수 밖에 없다.

전체 전시 면적은 18 만 평방미터에 달한다. 이곳에서는 절삭 성형 공작기계, 생산 시스템, 정밀가공기계, 계측/품질관리, 자동재료유동(Automated material flow), CAx 기술, 구동제어기술, 액세서리 분야에서 지능형 제조 기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전시 제품은 주요 분야별로 분류가 잘되어 있어 전시장 방문객은 관심 분야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EMO 하노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금속가공 전시행사로서 갖고 있는 규모와 위상 때문에 전시업체의 전시 제품 규모와 종류도 이전 행사와는 그 수준이 다르다. 방문객은 현장에서 제품을 보고 만지며 제품의 성능과 장점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2011 년도 행사에서 전시를 위해 현장에 수송된 기계와 전시물의 총 중량은 4 만 7000 톤에 달했다.

EMO 하노버는 금속가공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참가하는 행사다. 관련 분야로는 특히 자동차와 우주항공, 기계 및 플랜트, 전기, 정밀가공 및 광학, 금속가공, 의료기술 등이 있다.

2011 년도 행사에서는 업계 전문 참가자의 2/3 가 기계와 자동차 산업 분야 종사자였다. 이들 산업은 공작기계 최대 수요처로 전체 시장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011 년에는 자동차 업계에서 참가자가 많았다. 자동차 분야는 전세계 시장에서 새로운 모델, 엔진, 구동기술 대한 투자와 함께 생산량 확대가 이뤄졌다.

EMO 는 계속해서 신규 참가자를 유치하고 있다. 2011 년 EMO 를 처음 찾은 참가자의 비율은 45%에 달했다. 이는 전시 업체에게 잠재적 고객이 6 만 3000 명이나 새롭게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MO 하노버는 세계 최대의 혁신 투자 포럼

생산 전문가들은 EMO 에 대한 큰 기대를 갖고 하노버에 온다. 전통적으로 EMO 는 금속가공을 위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혁신 포럼으로 기능해왔다. 전시 기업에게는 이번 행사가 중대한 이정표라고 할 수 있다. 전세계 시장을 상대로 자신의 최신 기계와 개발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때문이다. EMO 하노버는 다른 행사와는 달리 전세계 방문객을 상대로 전시와 함께 참가 기업의 상대적인 위상까지도 보여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쿤뮌히 이사는 “모든 참가 기업이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준다”는 말로 표현한다.

오늘날 세계 제조 기업은 소비재, 이동수단, 의료기기, 에너지 기술 등의 분야에 관계 없이 유사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바로 고객들이 생산 장소에 관계 없이 고품질, 저비용, 친환경 제품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공작기계 제조사의 경우 이는 더 많은 유연성, 더 나은 품질, 티타늄이나 복합소재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컨셉, 자원 절약형 기계를 의미한다. 또한 많은 경우 툴, 제어, 동력 장치, 계측 기기, IT 연계 등 기계 설계

전체가 새롭게 바뀌고 있다. 기계나 생산 시스템을 전체 생산 과정에 최적화시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EMO 방문객 중에는 다수의 투자 결정자들이 있다. 이로 인해 EMO가 투자 플랫폼으로 집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1년 방문객 조사 결과 방문객의 3/4은 자신의 회사에서 투자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하노버를 찾은 유럽인 방문객 중 2/3와 비유럽인 방문객 중 3/4은 구체적인 투자 계획도 있었다. 전시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EMO가 이들 참가 기업에 충분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는 매출이 기록적으로 증가했다. 현장에서 체결된 계약 총액은 45억 유로 이상이었다. 또한 세계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EMO 하노버 참석 이후 6개월 만에 지난 1년치와 맞먹는 신규 수주를 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능형 제조에서 주요 역할을 하는 공작기계

경제 상황에 관계없이 현재는 할 일도 많고 도전 과제도 많다. 특히 도시화 확산, 인프라 업그레이드, 자동차 규제 강화, 원재료 가격 상승, 영양수요 증가, 인구변화, 의료의 질 향상 등의 분야에서 그렇다. 업계는 이러한 이슈 해소에 솔루션을 제공하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공작기계는 산업 생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학자들의 전망대로 2013년 글로벌 경제가 바닥을 치고 회복으로 돌아선다면 현대적 제조 기술과 생산 현장의 인텔리전스는 그 어느 때 보다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련 분야의 모든 기업 주체와 잠재 고객들이 EMO 하노버에 기대를 걸고 있다. 2013년 9월이 되면 EMO 하노버는 다시 한번 금속가공의 메카임을 보여줄 것이다. 쿤뮌히 이사는 “공작기계 분야 고객들이 EMO에 참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EMO만큼 권위를 자랑하며 전문성을 보여주는 국제 금속가공 행사가 없기 때문이다. 하노버만큼 많은 혁신을 찾아 볼 수 있는 곳도 없다. 공작기계 생산 기업도 EMO참가는 필수다. EMO만큼 전세계에서 그렇게 많은 투자 결정자를 유치할 수 있는 행사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보도자료 문의

도이치메세 한국대표부·아이피알포럼(주) 전시 1팀 유재은(Tel: 02-551-7063, E-mail: avery@ipr.co.kr)

관련 보도자료 및 사진 다운로드: www.emo-hannover.de/presseservice



http://twitter.com/EMO_HANNOVER



<http://facebook.com/EMOHannover>



<http://www.youtube.com/metaltradefair>



<http://linkedin.com/company/emo-hannover>



<http://www.cnc-arena.com/de/newsroom/emohannover>